

해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임윤희 교수

대통령 훈장 받은 '따뜻한 마음'

‘훈장감이다.’ 누군가가 훌륭한 일을 하거나 남이 못하는 일을 해냈을 때 우리는 자연스레 ‘훈장’을 떠올린다. 지난 5월 25일 해전대학 호텔제과제빵과 임윤희 교수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훈장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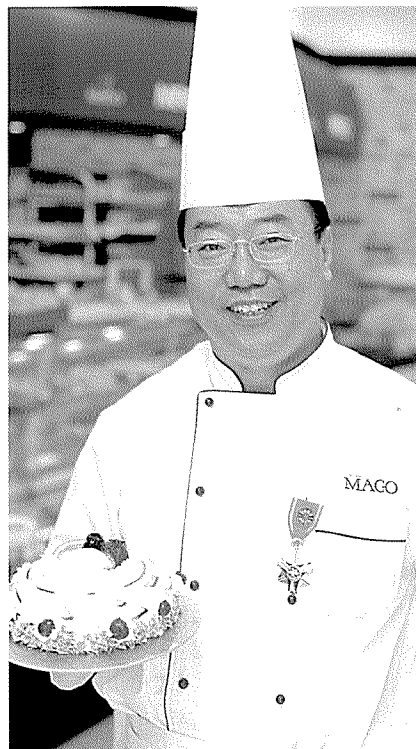
지난 해 11월 인도에서 열린 제6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케이크 데코레이션 부문에 참가한 한국대표 장진근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우승의 순간, 장진근 씨 뒤에 그림 자처럼 조용히 서 있는 사람이 있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해전대학 임윤희 교수다. 그는 장 선수의 쾌거에 대한 숨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5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임 교수는 전국장애인기능경진대회 제과부문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것을 계기로 우승한 장진근 씨와 인연을 맺었다. 마침 산업인력공단에서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출전을 위한 지도위원을 맡아줄 것을 의뢰해 왔고, 그는 지원금 한 푼 없는 그 임무를 흔쾌히 승낙했다. 그에게 지난해는 일년 내내 장진근 씨와 씨름하며 지낸 기억 밖에 없다. 특히 부산에서 직장을 구한 장 선수가 장애우라는 이유로 이직이 어려웠던 까닭에 임 교수가 주말마다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 더 힘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으로 지칠 대로 지쳐서 닫혀버린 장 씨의 마음이었다. 그런 장 선수를 보듬은 사람이 임교수였다. 제법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장 씨는 겨우 임 교수의 사심 없는 사랑을 이해하게 됐고, 그때부터 연습도 본 궤도를 찾게 됐다.

“훈장을 떠나 이번 금메달을 계기로 장 선수처럼 몸이 불편한 제과인들의 기술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진정한 실력을 인정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글 · 김미선 기자 | 사진 · 이호영



“장애우 제과인들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시지부 박봉석 부지부장

아낙들 속에 파묻힌 제과전령사

서울 서대문구 아낙우리밀과자점은 여성가장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공동체다. 어느 날부터인가 쿠키를 만들고 있는 ‘아낙들’ 사이에 왜 남정네 하나가 끼어있다. 머리를 맞대고 뭔가 속닥이기도 하고 언뜻 봐서 그들은 보통 사이는 아닌 듯 하다.

“선생님! 이리 좀 와보세요. 오븐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쿠키 색깔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찾는 목소리가 다급하다. 아낙들 가운데 파묻힌 의정부시지부 박봉석 부지부장(사진 오른쪽)은 달콤한 쿠키로 그들에게 생활의 달콤한 재미를 깨닫게 해주는 ‘쿠키 선생님’이다. 아낙우리밀과자점이 서울시 후원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하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이현주 대리

그녀의 미소가 아름다운 이유

2004 전국크림치즈제품경연대회가 무사히 막을 내렸다. 대회 진행을 위해 맘을 졸인 많은 사람들 중에 단연 눈에 띈 사람은 적극적으로 대회 진행을 도운 미국유제품수출협의회 이현주 대리다.

이현주 대리는 올해부터 직접 제품 출품으로 달라진 크림치즈예선 준비를 하느라 몇 달 동안 바쁘게 지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대회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예선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을 텐데도 지방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했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온갖 꾀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해냈던 그녀는 자신의 고생보다는 대회 참가자들을 배려하는 속 깊은 사람이었다.

“본선 때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습도가 너무 높아 과자 부문 참가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지 못한게 아쉽네요.”

크림치즈 대회를 막 끝낸 그녀의 머릿속엔 벌써 내년 크림치즈 대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크림치즈 대회를 제과인들이 꼭 한번쯤은 참가하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대회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자기 앞에 놓인 일을 언제나 웃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현주 대리. 그런 그녀에게 미소가 더욱 아름다워 보인다.

글·김영주 기자 | 사진·전문식



“크림치즈 대회를 많은 제과인들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대회로 만들고 싶어요.”

는 '유기농쿠키만들기 교실'은 주부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다.

“내가 평생 천직으로 알고 있는 제과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의정부에서 홍제동까지 한 시간이 훌쩍 넘는 거리를 다녀야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사실 그가 아낙우리밀과자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평소 쿠키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던 그는 지인을 통해 아낙우리밀과자점의 좋은 취지에 대해 알게 됐다. 마침 그들이 쿠키 품목을 넓히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제품 컨설팅터를 자청하게 된 것이다.

“우리 선생님은 진짜 꼼꼼하고 자상해요.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라도 원리부터 차근 차근 잘 가르쳐주셔서 늘 감사하답니다.”

선생님 자량이 끝이 없는 아낙들 뒤로 쑥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박봉석 부지부장은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일 뿐'이라며 손사래를 친다. ㉞

글·김미선 기자 | 사진·전문식

